

## 濟州島 바다밭에 있는 ‘원’ 이야기

고 광 민 (제주대학교박물관 학예연구사)

우리 나라 (국어사전에 있는 ‘밭’ 뜻풀이는 ‘물을 대지 않고 야채나 곡류를 심어 가꾸는 땅’ 이거나 ‘식물이 저절로 들이 박여서 무성한 땅’ 이라고 한결같다.

(국어사전은 그 나라 백성들의 언어와 문화를 올곧게 엮어놓은 책이다. 그러나 제주도 사람들은 그것에 얽매이지 않고 바닷가나 바다 속에도 밭은 있다고 고집한다. 미역이 많이 자라는 곳을 ‘메역밭’, ‘구쟁이(소라)’ 가 많이 잡히는 곳을 ‘구쟁이밭’, 그리고 ‘자리(자리돔)’ 가 많은 곳을 ‘자리밭’ 이라고 이른다. 땅에 밭이 있는 만큼 바다에도 밭은 있다는 말이다. 물의 밭이 어느 한 사람 몫이라면, 바다밭은 바다를 삶터로 살아가는 갯마을 사람들 공동의 것이다.

제주도 사람들의 바다밭 삶에 초점을 두고 조사·연구한 결과를 몇 편의 글에 담아 발표한 바 있다. 그때마다 ‘바다밭’ 이라는 말을 줄곧 써왔고, 앞으로도 써나가려고 한다.

제주도 바다밭에는 눈으로 보이는 유형과 무형의 문화현상들이 꼭꼭 숨어 있다.

潛嫂(잠수)들이 바다 밭에서 일하다 물으로 나와 불을 쪼기도 하고 또 바다밭으로 들어설 준비를 하는 곳이면서 일상적 삶으로 돌아서려고 평상복으로 갈아입는 곳인 ‘불턱’ 또는 ‘봉덕’, 제주도 사람들이 배를 타고 바다밭으로 드나드는 길목이나 다름없는 포구, 소금을 거두어들이는 소금밭, 그리고 돌로 만든 그물이나 다름없는 ‘원’ 또는 ‘개’ 는 우리가 쉽게 눈으로 확인 가능한 문화현상들이다. 제주도 바다밭은 무형의 문화현상들도 많이 간직하고 있다.

2002년 7월부터 2003년 5월까지 10개월 동안 (濟州島浦口研究(제주도포구연구)) 를 만들어 보았다. 이 책 부록에 포구·원·소금밭 데이터를 끼워 넣었다. 솔직히 제주도 바다밭 유산의 연구는 포구로 끝내려고 마음먹었기에 ‘데이터’ 를 실었던 것이다.

2003년 5월 28일, 제주발전연구원의 계간지 (제주발전포럼) 담당자로부터 원고 청탁을 받았다. 원고의 주제는 ‘원’ 이었다. ‘데이터’ 로만 끝내고 싶었던 ‘원’ 을 주제로 한 청탁이었다. 주어진 원고지 20매 분량을 ‘원’ 데이터를 토대로 만들고 있다.

해변의 생김새가 후미진 곳인 ‘개’ 에는 포구나 제주의 돌 그물 격인 ‘원’ 이 있다. 돌담으로 둘러막아 놓고 밀물 따라 물러든 고기떼들을 썰물이 나면 그 안에 가둬놓고 쉬 잡을 수 있게 장치해둔 곳을 ‘원’ 또는 ‘개’ 라고 이른다.



## 제주도 바다밭에 있는 '원' 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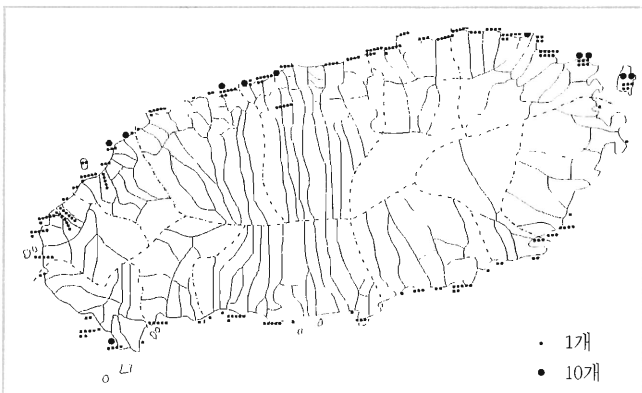
조천읍 조천리에서부터 구좌읍 하도리까지는 '개', 그 이외의 지역에서는 '원' 이라고 이른다. '개'는 해변 후미진 곳의 이름에서, 그리고 '원'은 한자어 垣(원)에서 비롯한 말이다. 오키나와에서도 이와 같은 어로시설을 두고 '魚垣(어원)' 이라고 이른다. 이하 이 글에서는 '원'으로 일관한다.

1970년대 초부터 전등불을 밝히고 '들망'으로 고기를 잡아버리는 어로기술이 일반화되었다. '들망'은 갯가로 몰려들 고기를 먼 바다에서 모두 잡아버리면서 '원'으로 고기들이 몰려드는 일이 뜸하였다. 또 해안도로개발과 포구 늘리기, 그리고 '원'의 무관심으로 말미암아 천천히 그 자취가 사라지고 있다.

제주도의 '원'은 마을공동소유의 유산이었다. 1995년 5월 1일, 애월읍 애월리에 있는 '큰원'에서 뜻을 같이 하는 마을사람 9명이 공동으로 원의 돌담을 보수하고 있었다. 우연하게 그 모습을 견학하였다. '큰원'은 이 마을 해변 '큰개동산'과 '쉐머리코지'로 말미암아 후미진 곳의 목에 긴 등근꼴로 55m의 돌담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이런 돌담을 '원담'이라고 하는데 1년에 한번 그 보수작업이 이루어진다. 3시간에 걸쳐 이루어졌다(사진1).



〈사진1〉 '큰원'의 돌담 보수(애월읍 애월리, 1995년 5월 1일)



〈그림1〉 제주도의 '원' 342개의 분포

1987년부터 제주도의 '원'에 관심을 가지고 차곡차곡 조사 노트를 채워나갔다. 그 결과는 나의 자그마한 책(濟州島浦口研究, 2003,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의 부록 중, [濟州島 '원' ('개')]이라는 이름으로 실었다. 모두 342개의 '원'이 조사되었다. 그 분포도는 〈그림1〉과 같다.

제주도의 '원'은 모두 이름을 지니고 있다. 그 하나의 예만 들추어본다.

한림읍 수원리 용운동 해변에는 '오상이원'이 있다. 潮間帶(조간대) 상층 자갈밭 위에 돌담으로 둘러막아 '원'을 만들었다. 그 돌담의 길이는 61m다. 옛날 이 마을 '오상'이라는 사람이 부모상을 당했다. 고단한 삶 속에서 한 달에 두 번 朔望祭(삭망제)를 올리려니 祭需(제수)감이 걱정이었다. 혼자 힘으로 '원'의 돌담을 두르고 고기를 잡았다. 지금은 그 '원'이 마을사람 공동 소유의 것이 되었다. 그 '원'을 두고 '오상이원'이라고 이른다. 부모 효도의 일념이 만들어놓은 '원'이다. 제주도의 '원'은 입지조

## 제주의



건이 다양하다.

모래·'빌레'·'머흘'·작지·물웅덩이 등 地形地貌(지형지모)에 따른 것과 천연과 인공에 따른 것이 있다. 여기에는 후자의 경우만 보기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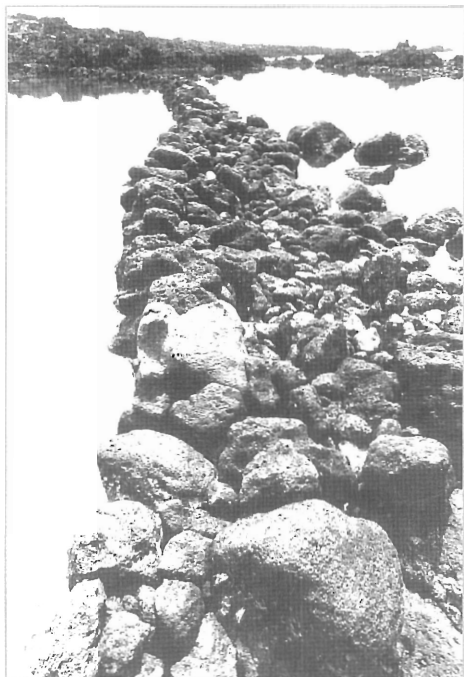
일부러 돌담으로 돌 그물을 만들 필요가 없는 것을 천연적인 '원', 그리고 돌담으로 막아 만드는 것을 인공적인 '원' 이라고 하고자 한다. 천연적인 '원' 보다 인공적인 '원' 이 훨씬 많은 것은 물론이다.

성산읍 신흥리에는 '검은텍이멜통' 이라고 이르는 천연적인 '원' 이 있다. 이 마을 '큰개' 라는 포구 동남쪽에 '검은텍이코지' 가 있다. 검은 언덕으로 이루어진 '코지' 의 이름이다. 그 허리 북동쪽에 물웅덩이가 있다. 이곳을 두고 '검은텍이멜통' 이라고 이른다. '멜통' 은 멸치가 가두어지는 물웅덩이라는 말이다. 물웅덩이는 두 개의 칸살로 짜여 있다. 안쪽의 것을 '안멜통', 바깥의 것을 '밖멜통' 이라고 이른다. 썰물에 물웅덩이가 이루어진다. 두 개의 칸살을 모두 어림잡



〈사진2〉 천연적인 '원' '검은텍이멜통' (성산읍 신흥리, 1995년 5월 16일)

아도 20평 안팎이다〈사진2〉.



〈사진3〉 '안원' 의 돌담  
(제주시 외도동, 1994년 5월) 김기삼 사진

천연적인 '원' 에 가두어진 물고기는 먼저 본 사람의 몫이다. 그러나 인공적인 '원' 은 그렇지 않다. '원' 의 돌담 보수에 참여한 마을사람들만에게만 잡을 권리가 주어진다. 인공적인 '원' 의 돌담은 바다밭을 공유하고 있는 마을사람 공동창작의 석조물이다.

제주도의 '원' 의 돌담은 아무렇게나 만들지 않았다. 돌담의 모양은 크게 직선형과 곡선형 두 가지가 있다. 그리고 돌담의 단면은 직삼각형과 직사각형이 있다.

제주시 외도동 연대마을 해변 중, '소금빌레' 와 '병것여' 사이 후미진 곳에는 두 개의 '원' 이 붙어 있다. 안쪽에 있는 것은 '안원', 그리고 바깥에 있는 것을 '벉깃원' 이라고 이른다. '벉깃원' 은 '병것여' 에서부터 '소금빌레' 까지 곡선형으로 돌담을 둘러막아 '원' 을 만들었다. 1970년대 툇 양식장을 만들면서 '원' 의 돌담을 허물어 버렸다. '안원' 의 돌담은 거의 직선형이다. 그 길이



〈사진4〉 ‘멜튼개’의 풍경(구좌읍 하도리, 1996년 8월 1일)

는 53m다. 또 돌담의 단면은 직사각형이다. 돌담의 높이는 1m, 너비는 2m 안팎이다(사진3).

구좌읍 하도리에는 ‘멜튼개’라는 ‘원’이 있다. 지그재그 100m 길이의 돌담이지만, 단면은 높이 1.4m, 폭 2.8m의 직사각형이다. 여기에서의 지그재그 돌담은 직선형 돌담의 아류다(사진4).

한림읍 금능리 해변에는 ‘소원’과 ‘므른원’이 마주 붙어 있다. 썰물에 물웅덩이를 이루기에 한자어 **沼(소)**를 빌어 ‘소원’, 그리고 썰물에 물이 말라버린다고 하여 ‘므른원’이라고 이른다.

‘므른원’은 192m의 곡선형의 돌담으로 이루어졌다. 단면 모양은 직삼각형이다. 그리고 ‘소원’은 ‘므른원’의 돌담 한쪽 허리에서 ‘코지’까지 54.5m의 곡선형 돌담으로 막아 만들었다. 단면 모양은 직삼각형이다(사진5).



〈사진5〉 ‘소원’과 ‘므른원’(한림읍 금능리, 1997년 6월 22일)

파도의 영향을 덜 받는 곳의 ‘원’의 돌담은 직선형 또는 그 아류인 지그재그형으로 돌담을 만들었다. 그 단면 모양은 거의 직사각형이었다. 파도의 영

향이 곧바로 미치는 ‘원’의 돌담은 곡선형이 대부분이다. 그 단면의 모양은 직삼각형이다. 돌담의 단면 모양 직삼각형은 직사각형보다 노동력이 더욱 요구됨은 물론이다.

제주도 선인들이 ‘원’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물려준 가르침은 ‘자연의 섭리’에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오늘을 사는 우리들은 과연 그 진리에 따른 개발을 하고 있을까.

하나의 사례를 들어보고 싶다. 우리들은 이 시대에 제주시 ‘담동’ 바깥에 철근콘크리트 벽을 단단하게 쌓아 올리고 그 안을 매립하였다. 파도의 영향이 바로 미치는 곳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직사각형의 벽을 쌓아 올린 셈이 되고 말았다. 越波(월파)의 피해는 계속 이어질지도 모른다. 선인들의 가르침에서 벗어난 개발은 아니었을까. 